

시민들의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는 서구 상무시민공원.

내 곁에 도심 공원…광주, 녹색도시를 그리다

시민 품으로 돌아온 도심 속 공원

▲북구 중외공원 내

생태예술놀이터.

▶광산구 쌍암

공원은 트레킹

코스, 잔디밭,

체육시설 등을

갖추고 있다.

광주시,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근린·문화·어린이공원 등 643개소 조성 '중앙근린공원' 전국 최초 국가공원 도전 생태·역사·문화 아우르는 공원 조성 노력

지친 하루의 일상을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'도심 공원'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 을 받고 있다.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대표 도시들은 그 도시의 명 성만큼이나 유명한 대표 공원(公園)을 품고 있다.

이에 비해 호남 대표 도시 광주에는 세계적 수준은커녕 국내 에도 내놓을 만한 도심 공원이 없는 게 현실이었다.

이에 광주시는 '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'를 선언하 고, 시민 누구나 공원 속 삶을 누릴 수 있는 '녹색 도시' 만들기 에 집중하고 있다. 특히 오는 2027년이면 도심 곳곳에 새로운 공원 24곳이 조성되고,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도

1894만6000㎡에 이르며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근린공원 과 어린이공원, 소공원, 문화공원, 역사공원, 체육 공원 등으로 관리 중이다.

광주시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원은 24개소이 며, 자체 예산 5000여 억 원을 들여 재정공원 15개소를 조성하 고 있다. 시는 또 나머지 9개 공원(10개 사업지) 713만3000㎡ 부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 자본 1조 5455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

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재정·민간공원 24개소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 면적만 909만3000㎡로, 광주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48%를 차지하게 된다.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현재 6.3㎡에서 12.3㎡로, 2배기량 늘어난다.

◇동구는 푸른길에서 맨발길까지= 광주 동구에는 현재 총 50 개소 24만 9036㎡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.

푸른길공원, 금남로·산수·두암제2·용산 근린공원이 있으며, 광주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학동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. 또 계림4주택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대로 계림 동 일대에도 3842㎡ 규모의 도심 공원이 들어선다.

2002년 공원으로 지정된 푸른길공원은 동구 계림동 광주역~ 남구 진월동 동성중 입구까지 이어지는 공원으로, 12년간 옛 경 전선 폐선 부지 기찻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초 록의 길, 생명의 길로 새롭게 태어났다.

◇생태·역사 어우러진 서구= 광주시 서구는 자연을 품은 생태 공원과 함께 5·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공 원까지 다양한 도시공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.

서구를 대표하는 공원인 풍암호수공원은 6월 폐쇄 후 수질개 선 작업을 거쳐 2027년 연말께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.

쌍촌동의 운천호수공원 또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데크 산책길 을 걸으며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. 치평동의 상 무시민공원은 600m 길이의 맨발걷기길 코스뿐 아니라 1만 1000여㎡의 국제 규격 잔디축구장, 400m 우레탄 트랙, 테 니스장, 농구장, 배구장 등 체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남

녀노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◇과거와 현재·미래 연결한 남구= 남구에는 역사와 농촌 등 다양한 테마 공원들이 자리잡고 있다. 도심 곳 곳의 근린공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휴양지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.

구동에 위치한 '광주공원'은 광주 최고의 도심 공원 으로 꼽힌다. 부지면적 4만9353㎡의 역사공원으로 거 북이 모양을 닮은 성거산에 위치해 '구강공원'이라고 도 불린다. 양림동에는 또 다른 역사공원인 '사직공원' 이 있다.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, 전망대가 있어 광주의

업공원 '빛고을농촌테마공원'도 자리잡고 있다.

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다. 광주 유일의 도시농

노대동에 있는 물빛근린공원은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주민들

의 힐링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.

◇북구는 남녀노소 즐거운 세대융합공원= 광주에서 가장 많 은 인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북구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즐길 수 있는 폭 넓은 종류의 공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.

대표적인 공원으로는 중외근린공원 내에 있는 '중외공원'이 꼽힌다. 주변 관광지로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, 국 립광주박물관,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이 있어 산책 외 다양한 문화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.

봄철 '벚꽃 터널'로 유명한 본촌 근린공원은 양산제를 품고 있 어 양산호수공원으로도 불린다. 광주시민의숲은 여름이면 아이 들의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. 황토 마사로 포장된 맨발 걷기 산 책로, 야영장이 있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다.

◇광산 문화·체육시설 어우러져= 광산구는 '녹색 자치구'다.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황룡강변을 따라 유채꽃밭길을 걷고, 호수 데크길 곳곳에서 무료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고, 도심 어디에서 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덕분에 거주 만족도 역시 타 자치구에 비 해 높은 편이다.

첨단지구 내 쌍암공원은 트레킹 코스, 잔디밭, 야외무대, 체육 시설, 미술관, 도서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듬 뿍 받고 있다. 호수 주변을 따라 봄에는 벚꽃과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, 여름에는 쌍암제에서 상쾌함을 내뿜고, 가을에는 단 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족과 연인, 동료 단위의 이용객이 많다.

수완호수공원 역시 광산구민의 산책 명소 중 하나다. 호수에 서는 춤추는 분수가 나오고 야외 무대도 있어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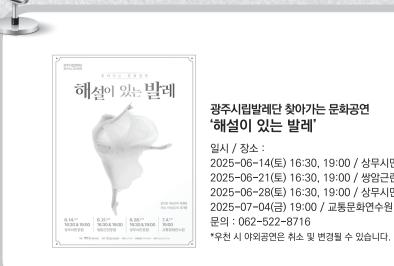
◇ '국가도시공원' 1호 지정 청신호=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올해 하반 기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 다. '국가도시공원'으로 지정되면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, 무 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.

광주 중앙근린공원은 1·2지구를 포함해 약 279만㎡ 규모로 광주 도심의 중심축인 서구 금호동·쌍촌동·풍암동·화정동 등에 걸쳐있다. 광주 전체 민간공원의 약 40%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 재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.

중앙근린공원은 다양한 테마의 도시 숲으로 조성 중이다. '어 울림 숲', '청년의 숲', '치유의 숲', '우듬지 숲', '예향의 숲', '가 족의 숲', '활력의 숲', '기록의 숲' 등 총 8개 테마다. '어울림 숲'은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대규모 도시정원으로 전 남 지역의 향토수종을 전시해 어린이정원과 시민정원학교, 빗물 정원, 다기능마당 등의 시설들로 구성된다.

> /글=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 /사진=최현배 기자 choi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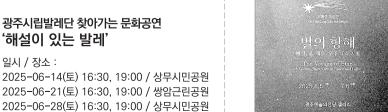
▶ 중앙근린공원 1지구 '어울림숲' 조감도



〈광주시 제공〉

광주예술의전당

문의 062)613-8233



GAC 공모전시

일시: 2025-06-05(목)~2025-07-06(토) 공연 있는 날 10:30 ~ 19:30 공연 없는 날 10:00 ~ 18:00

문의: 062-613-8357

